

보도시점 (지 면) 12. 19.(목) 조간
(인터넷) 12. 18.(수) 12:00

12월 동행축제, 연말 나눔소비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원 기록

- 온라인 채널을 통해 2,753억원, 지역판매전 등 오프라인 323억원 기록
- 유성온천크리스마스축제 등 15일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판매전 열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12.1~12.28)가 15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0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2,753억원과 개막 특별행사를 포함한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323억원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3,07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1,1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46억원이 판매되는 등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12월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제품으로 주위에 온기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판매전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점가에서 개최된 개막 특별행사에는 3일간 약 2만 4천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동행축제 참여기업 윈드스카프(기능성양말)는 “축제 기간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제품이 많이 노출되어 평상시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행축제 전용기획전에 참여한 호정식품(약과)은 “11번가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해당기간(12.1~11)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00% 상승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제품 판매 행사인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과 행복한백화점 나눔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취약계층 등에 기부하는 등 연말 온기 나눔 확산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12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온라인 전용기획전(11번가, 롯데온)을 포함한 부산지역 NC백화점 판매전(12.18~12.24), 군산&겨울나눔 동행축제(12.2~12.28), 인천 소상공인 우수제품특판전(12.20~12.25) 등 풍성한 지역판매전 행사들도 28일까지 개최되어 소비촉진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책임자	과 장	이정훈 (044-204-7240)
		담당자	사무관	박정은 (044-204-7266)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정륜조 (044-204-7361)
		담당자	주무관	신훈묵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

